

# “전통·현재·미래 매개 세계적 미술관으로 도약”

개관 3년 맞은 전남도립미술관 올해 증장기 사업 목표 제시 수목 아카이브 구축 본격화

전남도립미술관은 개관 3년 차인 올해 전통·현재·미래를 매개하는 세계적 미술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4일 “올해는 ‘전통 유산 계승’, ‘오늘의 현대미술’, ‘전남미술의 미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이라는 중장기적 목표 아래 전시와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예향, 수목의 고장’이라는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목 아카이브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아카이브에는 주요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한 기술 채록은 물론 사료 수집과 분류, 학술 교류 등을 통

해 체계적 연구 자료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동시대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예술성의 확장성을 보여줄 국제전 ‘시의 정원’에는 전남 문학을 배경으로 안유리, 이매리, 임흥순, 리밍웨이(Lee Mingwei)의 작품을 통해 미술과 문학의 상호 연계성도 보여준다.

대만 한국 일본 3국의 현대미술 향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바다-도대양기

전’, 꽃을 주제로 한 천경자·클로드 모네(Claude Monet) 등의 예술성을 음미할 수 있는 ‘꽃과 낭만전’도 선보인다. 미국 출신 흑인 작가의 ‘리처드 케네디(Richard Kennedy)’ 전시전도 연다.

2021년 BTS의 RM이 다녀가면서 큰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도 올해 다시 선보인다.

도립미술관은 그동안 지역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리움미술관 순회전

을 유치해 ‘인간, 일곱 개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거장의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프랑스 퐁피두센터 등에서 조르주 루오의 작품들을 들여와 ‘조르주 루오와 한국 미술전’을 개최해 세계적 미술관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립미술관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위해 올해부터 전시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

려해 운영하고, 미술관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탄소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 친환경·친화적 커뮤니티 미술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전남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며 “지역 작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중년, 원로 및 작고 작가 등 발전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민 기자



제지당하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정회된 뒤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한 증인석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다 국회 경위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 모두 다회용컵 사용해요”

광주시-자치구 캠페인 전개 초음파세척기 등 시설 설치

광주시가 올해 자치구와 함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다회용컵 사용하기 운동’ 확산에 나선다.

우선 자치구에 초음파세척기·살균건조기 등을 갖춘 전문 세척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회용컵 공유 사업’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국·시비를 투입해 서구와 광산구에 초음파세척기·살균건조기 등을 갖춘 전문 세척시설을 구축했다. 올해는 북구에 전문 세척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척시설이 구축된 만큼 광주시는 서구·광산구와 함께 1회용품 배출량이 많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규정 인근 카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동구와 남구는 구비로 규정 인근 카페 대상으로 다회용컵 공유 사업을 추진한다.

배달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늘어난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이 공공배달 앱에서 다회용기 사용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개인용기를 포장해 갈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앞장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을 계속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3개년(2024-2026) 추진계획을 수립해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단계별 추진계획과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청 직원과 청사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청 입주카페와 인근 카페 등 11곳과 협약을 하고 ‘다회용컵(공유텀블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직원이 협약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1회용컵 대신 광주

시가 제공한 다회용컵으로 주문하고, 사용 후 시청 본관이나 의회동 1층 수거함에 반납하는 사업이다.

반납된 컵은 전남 운영자가 매일 수거해 전용 세척장에서 고온세척과 살균 건조 등 위생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청사에서 열리는 회의나 행사에서도 1회용컵과 생수병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다회용컵 누적 이용량이 3만 3,440개에 달해 탄소배출량 1.7t(개당 52gCO2)을 줄였으며, 다회용컵 세척·공급 대행사업을 자활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순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은 폐기물 증가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다”며 “이런 사업을 통해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챙기는 문화가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 김희재 “SRT 전라선 운행 확정 환영”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숙원인 수서행 고속열차(SRT) 전라선 운행이 확정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사진)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업무보고에서 여수·포항·창원 3개 노선에 SRT를 연내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SRT는 부산과 목포, 즉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과 전라선 운행 지

역 주민들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수서행 직통 고속열차가 전라선에 투입되면 지역민의 수도권 2시간대 생활권과 접근성 확대 등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SRT 전라선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해 9월에는 윤석열 정부 첫 국토



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을 만나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SRT 전라선 운행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도권 동남부 수백만 시민과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운행 지역 150만 주민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 광주소방, 화재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4일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임시거처 14세대, 생활안전자금 2가구 각 500만원, 긴급구호물품 21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2021년 9월29

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화재 발생으로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노유자가 속한 가구에는 5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숙박시설 외 임시거처와 주거시설에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 등 생필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 5·18기록관-김근태기념도서관, 인권향상 ‘맞손’

기록물 연구·전시·교육 추진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김근태기념도서관은 4일 서울 김근태기념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록·문화·전시 분야 공동추진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사업 개발 상호 협력, 보유한

기록물 상호 제공, 민주주의 인식 개선과 향상을 위한 홍보 협조, 양 기관의 시설 이용과 지원 등에 협력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인류 유산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영구 보존하고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해 2015년 5월 개관했다.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정부기관과 군사법정 자료, 언론인 취재수첩,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전시·보존하고 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1985년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김근태 씨를 기념하기 위한 도서관으로, 2021년 12월 서울 도봉구에 개관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 도서·기록·전시·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